

“출구는 없다.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出口はない。三菱は判決をすぐに履行せ

2015년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항소심도 이겼다” 만세! 24일 오후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5억 배상하라”

“이 한마디 들으려 70년 기다렸나 보다” 눈시울

광주고법,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순간

고령 피해자들, 미쓰비시重에 상고 포기 요구도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겼다.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소송을 해온 지 16년 만으로, 해방 후 70년만이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오후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는 각 1억2000만원을, 다른 당사자에게는 1억원, 승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토록 했다. 1심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세번째 판결이다.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는 않자며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 중공업이 침략 전쟁을 위한 전쟁물자 생산에 양 할머니 등을 강제 동원하고 노무 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양 할머니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결이 끝난 뒤 이동련(85) 할머니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라며 힘든 몸을 이끌고 법정을 나섰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법원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 미쓰비시 중공업은 다르다 ▲일본의 동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민사 청구권이 소멸했다 ▲원고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 동원 희생자로 판정받아 위로금을 받으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지리한 소송이 이어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피해

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고령인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다. 1999년 첫 소송 당시 참여했던 김혜옥 할머니 등 2명은 항소심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고 김성주(86) 할머니는 고령으로 법정에 서지 못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미쓰비시가 잘못했다는 한마디를 들으려고 70년을 기다렸나 보다”며 “16년 넘는 싸

움에도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의 뜻있는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아베 정부의 사과를 들어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항소심 선고 뒤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면서 “미쓰비시 측은 더 이상 출구가 없음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윤장현 시장 “광주시민에 기쁨과 희망 주는 판결” 환영

윤장현 시장이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이날 승소 판결 환영 성명서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피해자들이 팔순의 나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너무 늦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윤 시장은 “미쓰비시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제징용된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시장은 또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민의 노력, 일본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역할을 해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 해질 13:14
해짐 19:51 | 날짐 00:34

6·25 65주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	21/25	보	성	비	19/23	
목포	비	20/23	순	천	차차흐려져	비	19/23
여수	차차흐려져	비	20/22	영	광	비	20/24
나주	비	20/25	진	도	비	20/23	
완도	비	20/22	전	주	차차흐려져	비	21/27
구례	차차흐려져	비	19/24	군	산	비	20/26
강진	비	20/23	남	원	비	19/25	
해남	비	20/23	혹	산	도	비	18/20
장성	비	20/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동	0.5~1.0	남동	0.5~1.5
남해	남부	남동	1.0~2.5	남동	1.0~2.5
남해	남부	남동	1.0~2.0	남동	1.0~2.0
남해	서부	남동	1.5~2.5	남동	1.5~2.5
남해	서부	남동	1.5~2.5	남서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45	00:43
	20:27	13:33
여수	밀물	썰물
	02:34	08:58
	15:41	21:38

◇주간 날씨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7/1(수)	2(목)
☁	☁	☁	☁	☁	☁	☁
21/26	21/27	20/28	19/29	20/26	21/27	21/28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10	운동	20
			빨래	

전남교육청, 일반직 574명 인사

나주공공도서관장에 이종범

전남도교육청은 이종범 총무과장을 나주공공도서관장(3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 574명에 대한 정기간사를 단행했다. <명단 22면>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오는 7월1일자 3급 승진 2명, 4급 승진 4명, 5급 승진 7명 등 일반직 공무원 57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4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재원 나주공공도서관장 후임으로 이종범 총무과장을, 이한근 목포공공도서관장 후임으로 김기정 시설과장을 3급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서기관(4급)에는 김용찬 총무과 인사

담당이 감사과 감사총괄담당으로, 이점희 예산과 예산담당이 홍보담당관으로, 김영안 행정과 사학지원담당이 정책기획관 교육협력관으로, 전만석 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정책기획관 정책평가담당으로 승진 발령했다.

일민학 예산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이정재 교육협력관은 예산과장으로, 박성수 홍보담당관은 행정과장으로, 김기오 행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박윤성 감사총괄담당은 시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용선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5급 이상은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승진과 보직을 부여했으며, 6급 이하의 본인의 희망지역을 반영한 전보서열 명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메르스 여파, 전남지역 해수욕장 개장 시기 연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전남지역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연기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장키로 했던 완도명사십리 해수욕장과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은 7월3일과 7월17일로 개장 날짜를 연기했다. 장흥 수문 해수욕장도 애초 이날 27일 개장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때문에 다음달 10일로 개장 날짜를 조정했다. 다음은 전남 주요 해수욕장 운영 일정.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7월11~8월23일) ▲보성 울포솔밭(7월3~8월16일) ▲해남 땅굴송호(7월15~8월16일) ▲무안 돌머리(7월11~8월16일) ▲함평 돌머리(7월17~8월16일) ▲영광 가마미(7월3~8월23일) ▲완도 명사십리(7월3~9월6일) ▲진도 관매도(7월10~8월30일) ▲신안 우전(7월20~8월30일) ▲신안 홍도(7월20~8월30일)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JT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시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시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